

## 한국어 출발침 발음 교육 방법

Kyung Ae Kim

O'zbekiston davlat jahon tillari universiteti

Koreys filologiyasi kafedrası o'qituvchisi

[good1017@gmail.com](mailto:good1017@gmail.com)

**Annotatsiya.** Koreys tili o'zining noyob tuzilishi tufayli talaffuz va ma'noni aniq ifodalash imkonini beradigan tildir. Ayniqsa, 받침 (batchim) tovushni so'z oxirida belgilovchi muhim omil sifatida xizmat qiladi. Koreys tilida batchimning borligi yoki yo'qligiga qarab so'zning ma'nosi o'zgarishi mumkin. Masalan, “밥” va “바” so'zlari batchimning mavjudligi yoki yo'qligiga qarab mutlaqo boshqa ma'noga ega bo'ladi. Bu xususiyat koreys tilining ifoda imkoniyatlarini boyitadi, batchim mavjud bo'lganda esa tovush yanada kuchli eshitilib, muloqot jarayonida aloqa samaradorligini oshiradi. Ushbu maqolada yakka batchim talaffuzidakuzatiladigan neytrallashish hodisasi va tovushning to'liq chiqmasligi hodisasi xususiyatlari o'rganilgan hamda yakka batchim talaffuzini o'qitish yo'llari va samarali ta'lim faoliyati turlari taklif etilgan.

**Kalit so'zlar:** koreys tili, koreys tili ta'limi, adabiy talaffuz, talaffuzni o'qitish, neytrallashish hodisasi, tovushning chiqmasligi hodisasi, talaffuz ta'limi faoliyati turlari

**Аннотация.**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лагодаря своей уникальной структуре позволяет чётко передавать произношение и значение. Особенно важную роль играет 받침 (batchim), который определяет звук на конце слова.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наличия или отсутствия batchim значение слова может меняться. Например, слова «밥» и «바» имеют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ые значения. Эта особенность делает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более выразительным, а при наличии batchim звук передаётся сильнее, что способствует более эффективной коммуникации. В данной статье рассмотрены особенности нейтрализации и неполного взрыва (unreleasing) в произношении одиночных batchim, а также предложены пути обучения их произношению и эффективные виды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Ключевые слова:**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бучение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нормативное произношение, обучение произношению, нейтрализация, неполный взрыв, виды учеб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по обучению произношению

**Abstract.** 한국어는 그 독특한 구조 덕분에 발음과 의미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언어이다. 특히 받침은 단어의 끝에서 소리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국어에서의 받침 유무에 따라 단어의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밥”과

“바”는 받침 유무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한국어의 표현력이 풍부해지고, 받침이 있는 경우 소리가 더 강하게 전달되기 때문에 대화에서 의사소통이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 본 논문은 한국어에 흘받침 발음에서 나타나는 중화현상과 불파현상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흘받침 발음 교육 방안과 효과적인 교육 활동 유형을 제시하였다.

**Key words:** 한국어, 한국어 교육, 표준 발음, 발음교육, 중화현상(neutralization), 불파현상(unreleasing), 발음교육 활동 유형

한국어에서는 7개의 기본 받침이 존재하는데, 이들은 각각 다른 소리를 가지고 있다. 표준발음법 규정 제8항 받침소리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ㅇ'의 7개 자음만 발음한다. 제9항 받침 'ㄱ, ㅋ, 'ㅅ, ㅆ, ㅈ, ㅊ, ㅌ, ' 'ㅍ'은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각각 대표음 [ㄱ, ㄷ, ㅂ]으로 발음한다. 이러한 현상을 중화라 한다.

(표1) 흘받침의 발음

표기상의 자음	환경	발음	예
ㄱ ㅋ ㄱ	어말 또는 자음 앞에서	ㄱ	국 닭다 키움 키움과
ㄴ		산 문	
ㄷ ㅌ ㅅ ㅆ ㅈ ㅊ		ㄷ	닫다 술 옷 옷다 있다 낮 꽃
ㄹ		ㄹ	물 길
ㅁ		ㅁ	밤 숨
ㅂ ㅍ		ㅂ	입 잡다 앞 났다
ㅇ		ㅇ	공 방

중화현상이란 원래 서로 다른 소리였던 것끼리 구별되지 않고 한 소리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중화현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원래는 서로 다른 소리인데 특정한 음성 음운환경에서 같은 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한다. 'ㄷ ㅌ ㅅ ㅆ ㅈ ㅊ'는 어두에서는 '다 타 사자 차'와 같이 서로 다르게 발음되는데, 이들 소리가 어말이나 자음 앞에 오면 '달-다 발 낮 있다 갖-다 꽃'같이 동일하게 [ㄷ]으로 발음된다. 외국어의 예로 독일어 bund - bunt -[bunt]로 발음된다. 둘째, 자음의 중화가 일어나는 환경은 자음의 중하는 원칙적으로 어말이나 자음 앞에서 일어난다. 어말이란 '집 뜰에 꽃이 피었다'에서의 '앞' 과 같이 다음에 이어지는 형식형태소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즉 중화의 대상이 되는 자음 다음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그 자음의 원래 소리대로 발음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중화현상이 적용된다. '꽃이' 같이 [꼬치]로 발음되면 그대로 발음된다. 이는 중화현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셋째, 중화가 일어나는 이유 중화는 여러 요인에 의해 일어난다. 독일어와 같은 경우는 어말에 유성음이 무성음으로 발음되는 환경에서 일어난다. bund-[bunt] 한국어는 불파현상에 의해 일어난다

불파현상이란 모든 음이 소리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발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공기가 입 밖으로 나오는 파열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불파현상이라 한다. 즉, 불파란 조음위치는 있으나 조음방법상 장애음의 다양한 특징이 사라지는 것이다. 불파현상은 파열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국, 밥'에서 초성의 [ㄱ, ㅂ]과 종성의 [ㄱ, ㅂ]는 표기는 같지만 소리는 다르다. 즉, 초성의 /ㄱ, ㅂ/는 파열의 단계를 거치지만, 받침의 소리는 파열의 단계가 없다. 외국인이 한국어 학습에 주의를 주어야 할 점은 받침에 있는 'ㅂ'을 파열시켜 발음함으로 우리에게서 마치 국[구끄], 밥[바브]처럼 들린다. 따라서 어말이나 다른 자음 앞에서 소리 나는 장애음은 파열되지 않은 평음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러한 불파현상의 특징으로는 첫째, 불파현상은 파열이 없다는 점에서 볼 때 '가, 다, 바'에서의 [ㄱ, ㄷ, ㅂ]의 발음과 '박, 듣(다), 집'의 받침에 나타나는 [ㄱ, ㄷ, ㅂ]는 표기는 같지만 실제 소리는 다르다. 초성의 /ㄱ, ㄷ, ㅂ/는 파열의 단계를 거치지만 받침의 이 소리들은 파열의 단계가 없다. 둘째, 비음/ㄴ, ㄹ, ㅇ/는 불파현상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비음의 경우는 입 안을 막더라도 여전히 코의 공깃길이 열려 있기 때문이다. 셋째, 받침이 중화되더라도 중화된 소리로 표기하지 않는 것은 뒤에 모음이 오면 원래의 소리로 발음되기 때문이다.

한국어의 흘받침 발음에서 각 발음 교육 방안으로는 첫째 비음의 경우 초성에서의 음가와 다르지 않아 외국인 학습자들이 크게 어렵지 않게 익힐 수 있다. 다만 종성을 허용하지 않는 언어의 경우나 비음 중 제한된 소리만을 종성에 허용하는 언어의 경우에는 특별한 학습이 필요하다. 먼저 '나, 무' 등과 같이 어두에서의 비음 소리를 통해 혀의 위치를 파악하고 이 때 '느, 므' 등과 같이 독립적인 모음을 사용해도 좋다. 혀의 위치를 파악한 다음에는 혀를 그 위치에 고정시키는 연습을 통하여 두 조음기관을 떼지 않도록 훈련하는 연습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즉 /ㄴ/의 경우는 혀를 입천장에서 떼지 않도록 하고 /ㄹ/의 경우는 두 입술을 다물고 있도록 한다. 그런 다음에는 /ㅏ, ㅑ/ 등과 같은 모음을 넣은 '안, 온, 암, 옴' 등과 같은 말의 발음 연습을 반복하여 실시한다. 둘째, 유음의 경우 음절말의 /ㄹ/는 모음 사이의 /ㄹ/와 발음이 다르다. 정확한 발음을

위해서는 어두의 /l/ 이 발음되는 위치를 고정시키는 훈련이 필요한데 혀끝을 치조 위치에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혀의 반대쪽 바닥의 대부분이 상대편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다. 장애음의 경우, 무엇보다 먼저 어떤 소리로 중화되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즉 /ㄱ/계열 소리와 /ㅂ/계열 소리로 구분해 주고 나머지는 모두 [ㄷ]로 발음된다는 사실을 인식시켜야 한다. 음절말 위치에서의 장애음의 발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불파에 관한 것이다. 많은 외국인 학습자들은 음절말의 소리를 파열하여 발음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한국어의 경우 '밥'의 두 /ㅂ/중 받침의 /ㅂ/는 불파음이므로 이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경음이나 격음 받침의 경우도 불파되어 평음으로 발음되므로 이를 분명하게 인지하도록 해야 한다. 불파음을 연습하기 위해서는 '압'이라는 소리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먼저 입을 크게 벌리게 한 후 입술을 다물게 하고 그 상태에서 일정시간 지속하게 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받침을 /ㅂ/를 이용하는 것은 그 소리가 가장 불파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그 후에는 치조음, 연구개음을 연습하도록 한다. 넷째, 마찰음의 경우 /ㅅ, ㅆ/의 경우 처음에는 이 소리들을 [사, 쏘]와 같이 어두에서의 소리를 통해 혀의 위치를 파악하도록 한다. 그런 후 혀를 같은 위치의 입천장에 붙이는 훈련을 하도록 하고, 그 상태에서 일정 기간 지속하도록 한다. 그 결과는 평음의 [ㄷ]소리. 파찰음인 /ㅈ, ㅊ/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두 소리는 구개음의 평음이 없으므로 치조음인 [ㄷ]로 발음됨을 주지시켜 연습시킨다.

이러한 흘받침 발음교육의 활동 유형으로는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듣기방법으로 교사가 흘받침이 들어 있는 낱말을 학습자에게 들려준 뒤에 학습자로 하여금 받침에 소리나는 음에 표시하게 한다. 둘째, 낱말 읽기 방법으로 흘받침에 대한 개별음 연습이 끝나면 교사는 학습자에게 낱말 읽기를 통해 흘받침의 발음을 연습시킨다. 학습한 낱말들을 섞어 놓고 같은 발음이 나는 낱말들을 찾아보게 하는 것도 심화 학습의 차원에서 효과적이다. 셋째, 문장 읽기방법으로 문장 읽기를 할 때 학습자가 정확하게 흘받침 발음을 할 수 있도록 교사는 주의해서 연습시켜야 한다. 읽기는 학생들이 지루하지 않게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연습하도록 한다. 넷째, 말꼬기 활동으로 유사한 발음을 정확하게 발음하기 위해 말꼬기 활동을 해 볼 수 있다. 이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유사한 발음 간의 차이를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음절별로 하나씩 끊어서 연습을 시킨 다음 점차 자연스런 속도로 말하게 한다. “빨간 색 큰 깡통은 깡 깡통인가? 안 깡 깡통인가” “강장공장 공장장은 강공장장이고, 된장공장 공장장은 공공장장이다”를 제시한다. 다섯째, 노래 활동으로 자칫 지루해지기 쉬운 발음 연습을 노래를 통해서 재미있고 쉽게 접근하게 할 수 있다. 학습자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기에 효과적인 방법이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노래를 제시한다.

이 논문은 한국어의 독특한 음운 체계 중 하나인 흘받침 발음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자들이 겪는 중화현상과 불파현상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적 접근을 제시하였다. 특히 흘받침은 단어의 의미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작용하며, 발음의 정확성은 의사소통의 명료성과 직결된다. 중화현상은 학습자가 여러 받침을 동일하게 발음하여 의미 구분이 어려워지는 현상이며, 불파현상은 받침이 제대로 발음되지 않아 소리가 약화되거나 탈락되는 문제를 말한다. 이러한 발음 오류는 특히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학습자에게 흔히 나타나며, 체계적인 교육이 요구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발음 연습 방법과 교육 활동 유형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반복적 듣기와 말하기 연습, 의미 차이를 강조하는 비교 활동 등이 효과적인 전략으로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흘받침 발음 교육은 단순한 음성 훈련을 넘어 의미 전달의 정확성과 문화적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위한 교육적 노력은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참고 문헌:

1. 국립국어원 표준 발음법 <http://www.korean.go.kr>
2. 권경근, 한국어 발음교육의 요소와 범위, 2016, 한국민족문화, P 58
3. 서월아, 외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흘받침 발음에 나타난 오류분석, 인문사회21, 제14권3호, P3887-3898
4. 전나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발음 교육 방안, 새국어생활 제25권 제1호, 2015, P 29-44
5. 허용/김선정,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발음 교육론, 박이정, 2006, P 197-210